거문도 · 백도 : 답사코스1

박철웅(전남대 지리교육과 교수)

1. 여수시 연혁과 기본현황

■ 연혁

538년 (백제성왕 16년) 원촌현, 돌산현, 757 년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해읍현, 여산현

940 년 (고려 태조 23년) 여수현, 돌산현

1479 년 (조선 성종 10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영 설치

1897 년 (광무 원년) 여수군 여수면

1914 년 폐돌산군, 여수군으로 병합

1931 년 여수군 여수읍 승격

1949 년 여수항 개항, 여수시 승격

여천군 설치(9개면) – 여수시 외곽지역

1976 년 여천지구출장소 개소(여천군삼일면, 쌍봉면일원)

1980 년 삼일면, 돌산면 – 읍으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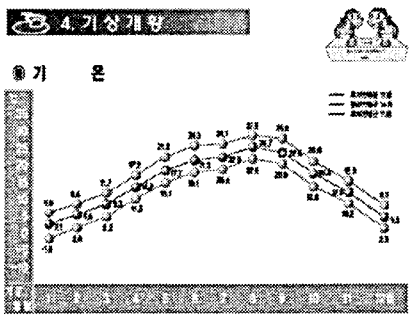
1986 년 여천지구출장소 여천시로 승격(삼일읍, 쌍봉면)

1998 년 4월 1일 통합여수시 개청

■기본현황

여수시 면적 : 498.72km^2

여수시 인구 : 303,9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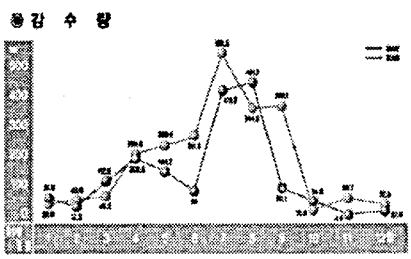


표 1. 해안선 및 도사

연령별 읍면동별	해안선(km)	도 서 현 황					
		도서수(개)	유인도(개)	무인도(개)	면적(km)	세대	인구(명)
1998	907.97	316	47	269	183.18	9,929	32,237
1999	905.87	317	49	368	178.02	10,042	31,443
2000	905.87	317	49	268	178.02	10,042	31,443
2001	905.87	317	49	268	178.02	10,668	31,398
2002	886.87	317	49	268	184.1	10,668	31,396
2003	905.87	317	49	258	184.1	10,885	29,726
들산읍	122.60	23	3	20	72.12	5,419	15,840
소라면	17.50	7	1	6	1.01	49	132
율촌면	37.00	13	3	10	0.78	98	322
화양면	89.70	18	1	17	0.71	13	22
남면	185.90	38	11	27	42.11	1,790	4,374
화장면	156.60	71	15	56	26.63	1,386	3,257
길산면	183.19	112	8	104	27.76	1,042	2,432
동문동	1.85	-	-	-	-	-	-
한려동	17.30	1	1	-	0.12	2	10
중앙동	1.69	1	-	1	0.02	-	-
충무동	0.50	-	-	-	-	-	-
광림동	-	-	-	-	-	-	-
서강동	-	-	-	-	-	-	-
대교동	2.36	-	-	-	-	-	-
국동	1.35	-	-	-	-	-	-
월호동	30.15	16	3	13	3.07	459	1,373
여서동	-	-	-	-	-	-	-
문수동	-	-	-	-	-	-	-
미평동	-	-	-	-	-	-	-
둔덕동	-	-	-	-	-	-	-
만덕동	8.82	1	-	1	0.019	-	-
쌍봉동	4.05	1	-	1	0.02	-	-
서전동	4.47	2	1	1	0.1	5	15
여천동	-	-	-	-	-	-	-
주삼동	-	-	-	-	-	-	-
삼일동	21.20	7	1	6	0.11	127	413
묘도동	19.14	6	1	5	9.54	495	1,531

자료 : 해양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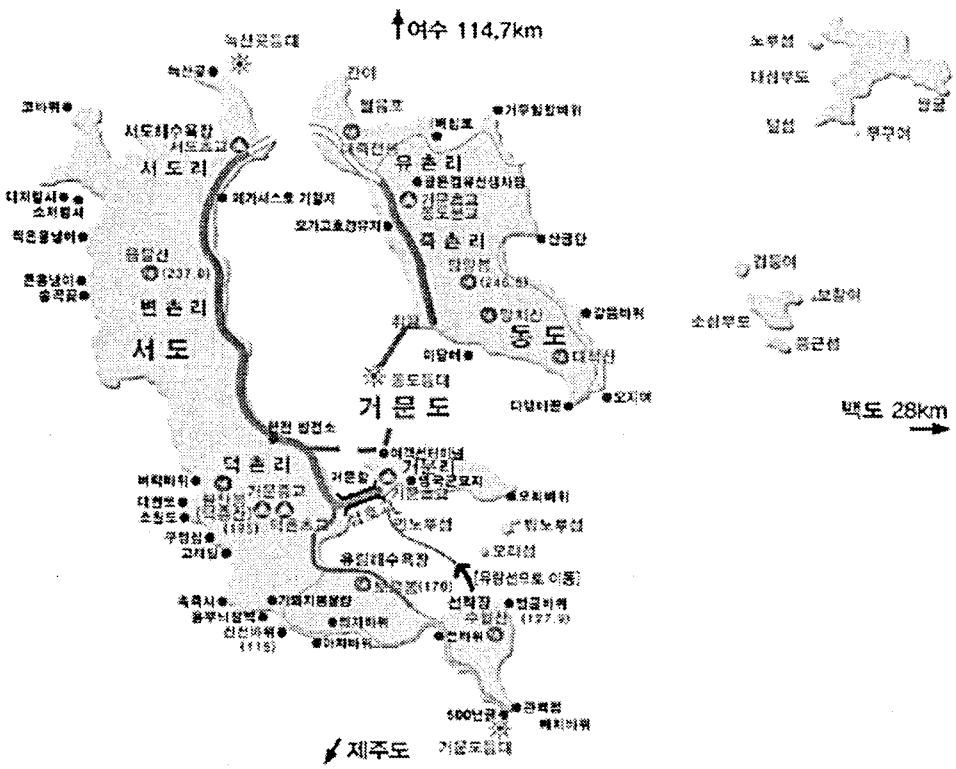
주 : 99년은 연륙도서 포함

2. 삼산면 현황과 유래

2005년 현 인구 1,031세대에 2,329명(남 1,183 여 1,146), 6개법정리, 10개 행정리로 구성

주요 섬은 거문도(巨文島), 초도(草島), 손죽도(異竹島), 평도(平島), 광도(廣島) 등이며, 작은 섬들이지만 해발고도 200~300m의 산지가 대부분이고 평지는 거의 없다

옛 삼산면 사람들은 어업이 주였으나, 개간가능한 논 1.8정보, 밭 230여 정보를 개척해서 농사 시작, 마을의 입지는 바람과 파도를 피하는 연안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주로 동? 서도가 마주보는 해안에 입지 현재 삼산면은 어촌이 거의 대부분



3. 거문도

■위치

- 거문도는 다도해 최남단인 동경 127˚19′ 북위 34˚1′에 위치,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온대 해양성 기후, 서도, 동도, 고도로 구성된 거문도는 면적 27.51㎢, 인구 2,869명(1999년). 면 소재지는 거문리이다. 본래 전라좌수영 관할의 섬으로서 고도(古島) · 동도(東島) · 서도(西島)의 3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삼도(三島) 또는 삼산도라 불리워졌고 흥양현(興陽縣 : 지금의 고흥군)에 속하기도 하였다. 총면적은 12㎢, 해안선 연장은 4.3㎞. 인구 776(1999). 고흥반도(高興半島) 남쪽 약 40㎞, 여수에서 94㎞, 제주도에서 86㎞ 거리에 위치한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육도(陸島)로서 과거에는 직선거리가 가까운 고흥, 장흥 지역과 교류하였으나 개항이후 여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중요한 생필품은 여수에서 구입

■ 연혁과 유래

– 동도(東島) · 서도(西島) · 고도(古島)의 3섬으로 되었으므로 삼도(三島) · 삼산도(三山島)라고도 하고 또 큰 맷돌처럼 생겼으므로 거마도(巨磨島), 지형이 큰문처럼 생겼으므로 거문도(巨門島)라고도 한다. 여수시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이 되어 군사상 요충지대이고 임진왜란 때에는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별장(別將)을 두어 방비하였으며, 1885년(고종 22) 영국의 동양함대가 침입하여 군사 시설을 두고 해밀턴항이라 부르자 조정에서 항의하고 거문진(巨文鎭)을 설치하였다가, 1895년 5월 지방관제개정에 의하여 진(鎭)을 폐하고 삼산면이 되었다.1885년(고종 22) 영국의 동양함대는 러시아 견제를 명분삼아 거문도를 강점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하였다. 조선정부의 항의와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점령의사가 없다는 약속으로 영국 해군이 철수하자, 1887년 동도리 유촌에 거문진이 설치되었다. 1895년 진이 폐지되었고, 초도(草島) · 손죽도(巽竹島)가 상도(上島), 거문도가 하도(下島)라 칭해져 집강에 의해 다스려지다가 1896년 돌산군이 설치되면서 편입되었다. 1894 년 동학란 때부터 해방 전까지 어업기지 건설을 위해 일본인들이 점거한 기록과 흔적이 있다. 1908년 장씨 일가와 원씨 일가가 최초로 부락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고 해방 후 일본인이 철수하게 되면서 새 터전을 이루었다. 마을 명칭은 외국인들이 빈번히 드나들어 왜섬 또는 이섬이라 하였으나 돌산군이 폐관되어 여수시에 이관되면서부터 거문도라 칭하게 되었다.

1908년 상도 · 하도가 합해져 삼산면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수군에 편입되어 동도 등 6개 이로 개편, 1949년 여수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여천군 삼산면이 되었고, 1965년 4월 손죽도 · 초도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지질과 지형

– 한반도 남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 말 내지 신생대 고제3기초와 이들 화산암이 분출할 때 동시에 퇴적된 화산암질 퇴적물을 많이 함유한 화산성 퇴적암, 그리고 이들을 후에 관입한 세립질 문상 화강암(granophyre), 그리고 다시 이들 암석을 관입한 염기성 또는 중성의 암맥이 관입, 분포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으 남쪽 해안 부분에 화산암이 분포하는데 백악기 중기–말기에 분출한 안산암질이다. 일부는 화산암을 퇴적물로 함유한 화산암 기원의 퇴적암이 협재한다. 세립질의 문상화강암이 분포하고 이를 관입한 염기성 맥암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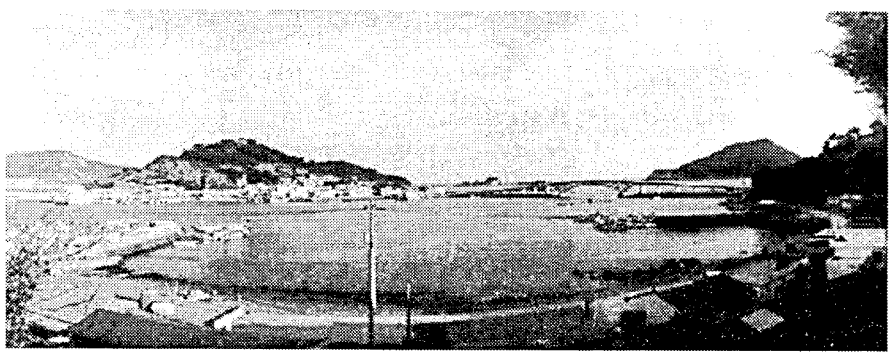
동도에 위치한 望向山, 246.8m을 비롯하여 237m의 응달산, 195m의 불탄봉이 있으며, 덕촌의 수월산은 128m이 주요 봉우리로 기복이 많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암석해안이 많다. 동남해안과 남쪽 해안에는 높은 해식애(海蝕崖), 해식동이 발달하였는데 80m의 해식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서도에는

덕촌의 유림해수욕장과 장촌의 미곡명사해수욕장 두 곳에서 사빈해안이 나타난다.

서도(장촌, 변촌 = 갓지미, 덕촌 = 등니), 동도(죽촌, 유촌), 고도(이섬 = 왜섬)의 세 섬으로 둘러싸인 거문도의 내해(內海)는 호수와 같아 천혜의 항구 구실을 한다.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內海)는 수심이 깊어 큰 배도 항해가 가능하여 1966년 일찍 거문항(巨文港)은 원양어업기지가 되었다. 성어기(盛漁期)에는 파시(波市)가 서기도 했다. 현재 유인도 8개, 무인도 104개가 있다.1월평균기온 1℃, 8월평균기온 25℃, 연강수량 1,345mm이다

橘隱齊文集에 나타난 지형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팔영산(註 : 고흥소재) 큰 맥이 남쪽으로 바다 백리를 건너와 하나의 작은 마을이 開局되었으니 이곳을 三湖라고 이른다. 세군데 산맥은 활처럼 굽어 首尾는 서로 마주 보고 있다. 海門은 남과 북으로 입술처럼 불쑥 내밀고 마을은 동쪽과 서쪽에서 낯을 대하 듯하여 百千개의 雉堞(註 : 성위에 쌓은 낮은 담)이 꾸불꾸불 둘러싸여 많은 宮室을 둘러싼 담과 같고 하나의 큰물이 있는데 鹿門(註 : 서도와 동도의 북쪽 끝이 마주 보이는 바다)은 목구멍처럼 뱉는 물이 腹心(註 : 거문도 내해)으로 들어가 紅羅의 尾(註 : 百川의 끝) 閭(註 : 모든 물살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를 직통하니 汪, 濱, 泓, 渟은 증감이 없이 玉鏡을 열어 놓은 것 같아 신령한 빛은 사람에게 반사되고 있다. 또 하나의 沿江가에 촌락들은 서로가 밀접되어 등자나무 울타리와 뗏집들은 가지런하지 아니하지만 千百의 인가는 될 것이요, …"



서도에서 본 삼호교

수월산에서 본 거문도(동 · 서도)

■촌락구성과 산물

변촌-갓지미, 덕촌-언덕, 예미-거북, 진막-요세, 소거문-톱날, 평도-평평하다, 광도-너프리

유촌-유자, 죽촌-대나무

삼산면은, 초도와 손죽리에 각각 출장소가 있으며, 거문리 · 덕촌리 · 서도리 · 동도리 · 초도리 · 손죽리 등 6개의 법정리가 있고, 이를 거문 · 덕촌 · 서도 · 변촌 · 유촌 · 죽촌 · 대동 · 의성 · 진막 · 손죽 등 10개 촌락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자연 마을으로는 거문 · 덕촌 · 서도 · 변촌 · 유촌 · 죽촌 · 대동 · 예미 · 녹항 · 상도 · 의성 · 경촌 · 진막 · 정강 · 손죽 · 소거문 · 평도 · 광도 등 18개이다.촌락은 주로 풍랑이 약한 서도의 서사면에 입지한 유촌마을과 죽촌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촌락은 크기에 따라 100호 이상이 되는 대촌(大村)은 거문 · 덕촌 · 소도 · 대동 · 손죽 등 4개 부락이며, 50호 이상 100호 미만의 중촌(中村)은 유촌 · 죽촌 · 의성 · 진막 4개 마을,, 50호 미만의 소촌(小村)은 변촌 등이다. 거문리에는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시 희생된 9명의 영국인 묘가 있는데 6인의 묘는 영국으로 이장되었고, 3기의 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경지면적 가운데 논이 94%를 차지하나 현재 벼농사는 휴경중이어서 쌀의 생산량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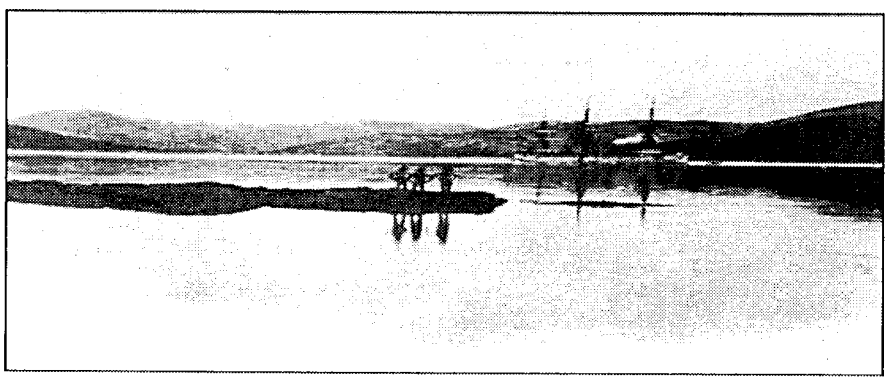
주요 농산물로는 보리(쌀보리는 생산되지 않고 맥주보리만 생산) · 팥 · 고구마 등이 생산된다. 또 유자와 감자 · 마늘 등이 재배되고 쑥의 생산이 많다. 근해 어장에서는 멸치 · 조기 · 삼치 등이 어획되고, 김이 양식되며 톳 · 미역 등이 채취된다.

마을을 총괄하여 관할하는 이장이 있고, 이밖에 마을의 원로가 되는 지도자가 있다. 또, 어촌계 · 노인회 · 청년회 · 부녀회 등도 두고 있다. 이장은 마을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마을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 재산을 관리하며, 관의 행정 및 지시 사항을 마을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을의 갖가지 행사-洞祭, 祈雨祭, 賦役-를 주도하고, 농사 지도, 곡식의 수매, 관혼상제 등 제반 마을일을 관장해야 한다. 이장은 매년 정월 보름께 부락 총회에서 선출하며, 면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보수도 매월 일정액을 면으로부터 받는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봄 가을로 농산물을 각출하여 주기도 했다.

■거문도 사건

- 1885년 4월부터 1887년 2월까지 약 2년간 영국의 동양함대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군함 6척,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무력으로 점령 후 영국기를 게양한 사건이다. 당시 세계적인 규모로 러시아의 남하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東海)에 임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에 얼어 해만(海灣)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不凍港)을 물색하였다. 그 대상지는 영흥만(永興灣) · 제주도 · 쓰시마섬[對馬島] 등이었고, 이 중에서도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였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1882년 한영수호(韓英修好)의 교섭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이미 거문도의 조차(租借)를 제의함으로써 거문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또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한국의 조정이 급속히 제정(帝政)러시아에 접근하여 한 · 러밀약[韓露密約]을 체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국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사태가 급박해졌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선점(先占)을 예방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국선박 1척이 러시아가 점령 대상지로 삼았다는 영흥만 일대를 탐사한 후, 4월 15일 군함 6척 ·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 달 하순경 영국기를 게양하였다. 한국 정부는 영국 부영사(副領事)와 청(淸)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代理公使)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또 미국 · 독일 ·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엄세영(嚴世永)과 묄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러시아는 청나라에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됨에 따라,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은 이 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그 결과 이홍장은 청나라 주재 러시아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에 통보함으로써 드디어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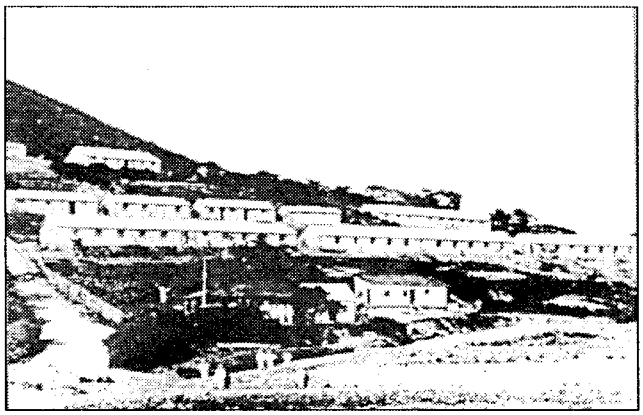


1. 정박중인 군함과 동도에서 본 서도의 전경

동도에서 서도를 바라보며 촬영한 서도의 전경으로 군함HMS Pegasus호가 정박중에 있다.또 고도앞 해상에는 다른 군함이 정박중인 것도 보인다.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이라 명명하고 서방세계에 처음 소개한 것은 영국이다.

2. 서도의 한 초가와 고목

초가 옆에 갓을 쓴 정장 차림의 한 주민이 포즈를 취해 서 있다. 복장으로 보아 마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사진 설명에는 [조선의 집(COREA HOUSE)]으로 기록 되어 있다.



3. 고도에 건설된 해병대의 영구 막사의 전경

고도에 건설된 해병대 주둔용 영구 막사 전경, 위치는 거문도 초등학교 자리 일대이다. 잘 정비된 병영의 모습으로 해안은 석축으로 쌓아 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4. 목책 부설 중잉 해군 장병들

내항의 북단 해면에 해군 장병들이 목책을 부설하고 있다. 사진에서 윗쪽이 서도이며 아랫쪽이 동도로 바위가 자연석이 아닌 점으로 보아 이곳 해안 절벽을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백도

■위치

–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진 39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상백도와 하백도로 구분된다. 동경 127도 34분 50초 –127도 34분 00초와 북위 34도 02분 30초 – 34도 03분 50초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641.13m²이며 행정명은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 30–66번지이다. 최고봉을 보면 상백도는 180m로 무인등대가 있고, 하백도는 110m이다.

■지질과 지형

- 섬의 생성은 중생대 말 백악기 내지 신생대 고제3기초로 추정되며, 세립질 미문상화강암(granophy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선한 표면에서는 어두운 홍색이지만 지표에 노출되어 풍화를 받은 암석은 표면이 백색 또는 홍백색을 띠면 부분적으로 갈색과 암갈색으로 되어 있다. 미문상화강암 사이사이 중성암맥이 여러 곳에서 관입하여 있다. 이 암석은 화성암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층상구조가 발달하였고 암질이 치밀하고 견고하다. 섬 전체가 거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은 가파르고 수직의 주상절리와 해식작용에 의한 풍화와 차별 침식지형으로 해식애, 해식동, 해안단구, 시스텍이 발달하였다. 산정상정부와 산복이 좁아 수계의 발달이 거의 없어 퇴적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섬들의 분포 양상은 주로 북동-남서,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단층과 절리의 발달하여 그 이후의 해식을 받은 결과 해안선의 드나듦이 매우 심하다. 후빙기 지반의 융기율이 빙하성 해수면의 상승을 압도하는 해안단구가 잘 나타나고 있다.

■백도의 해안단구

- 백도의 해안단구는 현재 드러나 있는 지형상 고해식대지로만 남아 있다. 해안단구임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들 고해식대지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안단구 다시 말하면 해식대지를 기술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최고 수준의 침식면에 해당하는 paleo-shoreline고 노두상에 나타난 해식대지의 전단부이다. 아래 그림은 해안단구별 고해안선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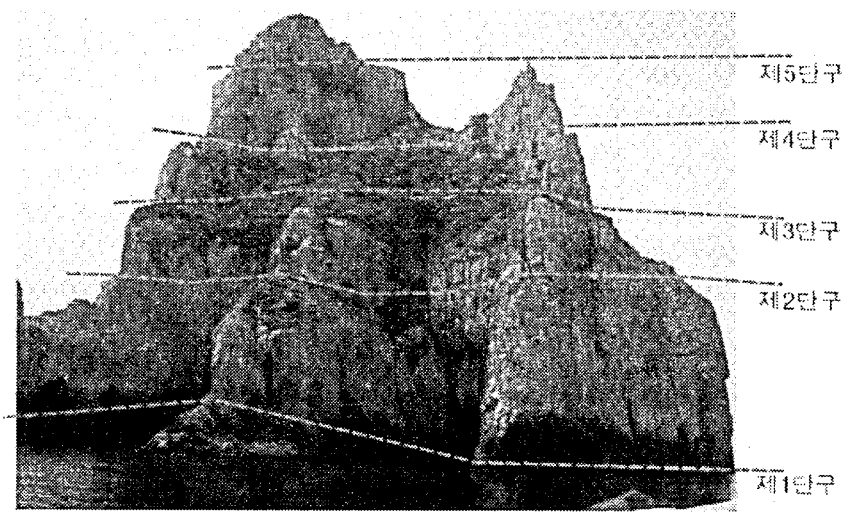


그림 16. 단구별 고해안선

대개 평행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단구에서 고해안선의 수준은 약간 기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림에서 제1단구의 해안선은 현재의 해식대지가 미약하나마 해수면 상승을 동반하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비친다. 나타난 층준을 비교하면 동해안보다 많은 수이다.